



한국양회공업협회

ACPAC회의 개최

5월 27일과 28일 경주 조선포텔에서 제48회 ACPAC (Asia Cement Producers Amity Club) 회의를 개최했다. ACPAC회의는 우리 나라를 비롯,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회원국의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모여 각국의 시멘트 수급 현황과 수·출입 및 생산시설의 신·증설현황 등을 살펴보고 회원국간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동양시멘트(주)

노영인 신임 대표이사 사장 취임식

노영인 대표이사 사장의 취임식이 3월 2일 대강당에서 본사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노영인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움을 느끼는 한 사람의 동료로서 생활할 것이며 항상 여러분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아울러 현장을 중요시하는 사장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새 출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노영인 사장은 각 조직 단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부과되는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해 능동적이고 패기에 찬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기업상 수상

4월 21일 한겨레신문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제8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에서 1차금속·비금속광물부문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했다. 경제정의기업상은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상을 정립하기 위해 '91년 제정되었으며 창의와 혁신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에게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상을 통해 명실공히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삼척공장 크링카 싸이로 1기 신축

삼척공장 1, 2, 3호 키른 크링카 저장용 싸이로 신축공사가 1년 4개월 여의 공사 끝에 완공돼 2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신설된 크링카 싸이로는 2만5천톤 규모로 총공사비 3억7천만원

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97년 10월에 착공하였다. 신설 사이로가 본격 가동함에 따라 재고누적으로 인한 키른의 운휴방지와 생산효율증대는 물론 크링카의 품질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쌍용양회공업(주)

창립 37주년 기념식 개최



5월 14일 창립 37주년을 맞아 본사 및 전국 사업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김병기 상무와 최만 상무에게 30년 근속상을 수여하는 등 총 206명에게 장기 근속상을 수여했다. 명호근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IMF 이후 시멘트업계는 급격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영업환경이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회사가 21세기에도 더욱 발전하여 우리의 꿈과 희망을 한껏 펼칠 수 있는 보람있는 일터가 되고, 후배들에게도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분발하자"고 당부했다.

벨라이트시멘트 KS인증획득

영월공장이 국내 최초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벨라

이트시멘트 KS인증을 획득했다. 벨라이트시멘트는 저열 포틀랜드시멘트(4종)에 속하는 특수시멘트로 보통 포틀랜드시멘트에 비해 저발열·고유동·고강도의 특성을 갖고 있어 장대교량의 교각·교대 등의 하부구조물, 댐·하천·항만 등의 토목구조물, 대형 건·건축물의 기초, LNG 지하 저장소 등의 시공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한일시멘트공업(주)

정환진 사장 취임식 및 시무식



1월 4일 제6대 정환진 대표이사 사장 취임식 및 시무식을 가졌다. 신임 정환진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일시멘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1999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대전환점이니 만큼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룹웨어 오픈

5월 3일부터 그룹웨어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가동시켰다. 상호간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공유, 원활한 업

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그룹웨어시스템은 인터넷환경을 기반으로 한 인트라넷시스템으로써, 사내외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며 앞으로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한 e-business로의 확장이 용이하다. 향후 이러한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사내의 모든 정보 및 학습내역을 전자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이를 대고객서비스 차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세아시멘트공업(주)

김동열 사장, 취임식 거행



3월 2일 이윤무 부회장에 이어 제7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동열 사장의 취임식을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세아타워 15층 대강당에서 가졌다. 김동열 사장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경영기조를 유지하고 노사화합의 토대 위에서 열린 경영, 현장중심 경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풍토를 다져나갈 것을 약속하고, 조직내 신뢰강화로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질 중심의 경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공장 3호 키른 개조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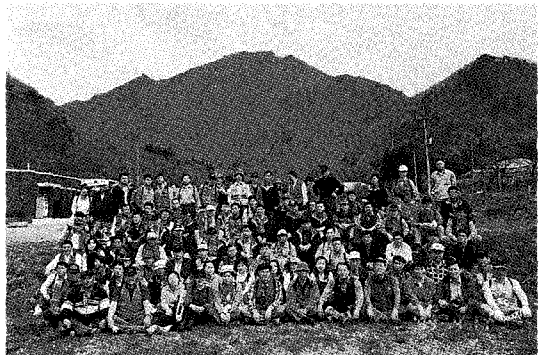
제천공장 3호 키른이 지난 4월 6일 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시험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3호 키른 개조공사는 생산능력과 설비효율을 높여 보다 우수한 품질의 시멘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서 MFC-Calcliner와 신형냉각기(IKN Cooler)를 설치하였고, 전공정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약 250여억원을 투자한 3호 키른은 개조공사후 일일 4,7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약 500만톤이 증가하여 공사 이전보다 약 10% 가량의 생산능력이 향상되었다.



고려제조시멘트(주)

사내 등반대회 실시

4월 17일 오동섭 관리인을 비롯한 본사, 장성공장, 광양공장의 일반직 사원 100여명이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입암산성에서 회사의 발전과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날의 등반대회를 통해 임직원들은 회사의 소속감 고취와 자신감을 갖는데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RH시멘트(주)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3월 30일 옥계공장 한라아파트 소극장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가졌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명한 대표이사는 “'98년 12월 31자로 주사업부문인 시멘트사업부문의 영업일체를 RH시멘트주식회사로 양도하고 '99년 3월 10일 양도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대부분의 채무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손영엽상무이사를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Y2K 영향평가 및 테스트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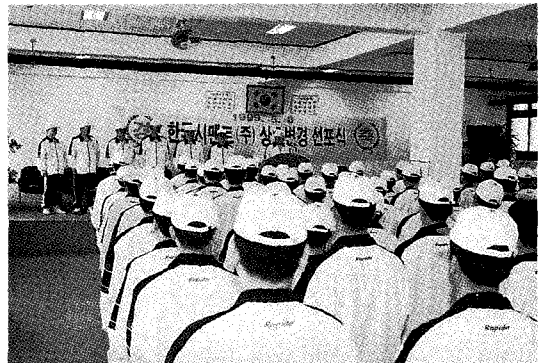
1월 18일 옥계공장 Y2K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관 3층 전산교육장에서 Y2K 문제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주요발생 예상분야에 관한 개요와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향평가 수행 및 점검방법에 관한 발표를 한 후 문의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됐다. Y2K문제는 올 8월말 해결 완료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대외기관의 인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시멘트(주)

한국시멘트(주) 로 회사상호 변경

5월 8일 한국고로시멘트제조(주)로 되어 있는 회사 상호를 한국시멘트(주)로 변경하고 투명과 화합의 경영기치 아래 제2의 창업을 선언하였다. 포항공장에서 실시한 이날 선포식에서 정병섭 관리인은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도 열심히 일해준 임직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고 능동적·의욕적인 사고로의 의식전환 및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제일주의 정신을 당부하였다. 또한 선포식후 포항 근로복지관 운동장에서 사원 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무재해 1배 달성

포항공장은 4월 14일자로 「무재해 1배」를 달성하였다. 1998년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1배 기준인 올해 4월 14일까지 포항공장에서 한건의 재해도 발생시키지 않아 달성하게 된 이번 「무재해 1배」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유무형의 효과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신감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